

《논리소년, 문학소녀를 만나다 - 한국문학 편》

콘텐츠와 따로 노는 캐릭터... '논술·수능 강박증' 여전
후속 시리즈, 진정한 문학의 매력 전하는 내적 콘텐츠 기대

글_김준호청소년 도서평론가

《논리소년, 문학소녀를 만나다》(이하 《논리소년》)에는 우리 문학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우선 <서동요>·<청산별곡>·<서경별곡> 등 우리 고유의 문학 작품들이 사회·정치·역사·문화적 맥락을 갖고 소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런 특징 덕에 독자들은 작가가 당시 왜 이런 소재로 작품을 썼는지, 작품의 주인공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문학작품의 탄생 배경과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언급함으로써, 청소년 독자로 하여금 문학작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유도한다. 방법론에 있어서 편법이 아닌 정석을 제대로 밝는다는 점이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다.

또 《논리소년》에서는 애초에 “한국문학이란 ‘황금의 영토’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초심자들에게 필요한 한국문학의 지도나 지형도가 되고자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문학의 날줄과 씨줄을 넓고 깊게 짜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의도인 것이다.

이런 기획의도를 온전히 살리려면 역량 있는 저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고전문학을 한글세대의 감각에 맞게 재미있게 설명해 온 전경환·정출헌 교수를 비롯해 ‘열하일기 읽기’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고미숙씨까지, 세 필자가 고전문학 편을 담당했다. 현대문학 편을 맡은 문학평론가 김경수·우찬제 교수도 한국 현대사와 사회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사를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다. 우수한 저자들의 역량이 기획의도를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으니, 이



또한 이 책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논리소년》을 읽다 보면 여기에 소개된 다양한 문학작품의 원본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여러 작품을 요약해 한꺼번에,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책들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사실 일부에서는 청소년 도서 중 다이제스트 류의 단행본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원본 읽기에 충실하려는 독자들의 니즈needs에 반하는 기획이 아니냐는 것.

청소년이 읽기에 분명 장점이 많은 《논리소년》. 그러나 청소년 기획물로서는 아쉬운 대목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우선, ‘논리소년’과 ‘문학소녀’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점이 그렇다. 청소년 타깃 도서의 눈높이에 맞게 책을 만들자 하는 고민의 산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긴 하지만, 실제 책이 담고 있는 콘텐츠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두 캐릭터는 각각 역사주의와 형식주의,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의 대변자로 서서 상대의 견해를 반박하며 문학에 접근한다. 논리소년은 “문학은 그 시대 사회상의 산물이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상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문학소녀는 “마음

을 올리는 감동이 중요해. 이성을 뛰어넘는 예술적 상상력이야말로 문학의 가치를 결정하지"란 생각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이 두 캐릭터가 시대별 문학의 장르와 내용을 설명하긴 하지만, 등장하는 횟수나 의견을 펼치는 기회도 적을 뿐더러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저자들의 서술 내용과도 별 연관성이 없다. 한마디로 '따로국밥'인 격이니, 차라리 캐릭터를 더 적극 활용하고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시켰거나, 아니면 아예 캐릭터를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일이다. 어찌 보면 시선을 끄는 제목을 붙이기 위한 '구색 맞추기' 식 캐릭터 도입이라는 무리수를 둔 격은 아닐까.

실제로 최근의 청소년 도서 중에는 작위적인 구성을 지닌 책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의 흥미와 눈높이'를 맞추고 책 내용에 잘 녹아들지 않는 학생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흥미를 돋우려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재미로 다가가기보다는 어색함과 거부스러움만 초래하기 쉽다. 청소년들에게 많이 읽힌 바 있는 《나의 문학유산 답사기》나 《과학콘서트》 류의 책들은 성인 교양물이지만 학생에게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도서란 사실을 출판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몇몇 책들과 마찬가지로 《논리소년》에서도 수능과 논술 대비용 기획물이 갖고 있는 맹점이 엿보인다. 《논리소년》의 책 표지에 제시된 '꼭 읽어야 하는 작품을 골라, 꼭 알아야 하는 핵심을 다룬, 꼭 필요한 문학과 세상읽기'란 카피의 콘셉트는 논술과 수능을 대비한 대목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논술시장은 거품이 크다. 현실적으로 대입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은 상위 10%의 성적인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이기에, 수험생을 겨냥한 논술서는 미미한 시장 수요를 감안하면 성공하기란 매우 힘들다.

최근 일부 출판사에서는 '서울대 고전 100선' 등 특정 대학의 권장도서 목록을 '청소년 기획'의 바이블처럼 여기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요즘 대학에서는 제시문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잘 알려진 읽기 자료를 되도록 출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고전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소년》에 보다 우리 문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첨가했다면 어땠을까. '논술·수능 강박증'을 동반한 기획에서 과감하게 탈피, 기존 교과서와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한국문학'이 갖고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획으로 접근했다면 또 다른 면모를 지닌 《논리소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사실 한국 청소년들은 불쌍하다. 그들이 대학 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야 할 토끼는 여러 마리다. 가장 먼저 수능이란 토끼가 있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이 등급제로 변화해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수능 등급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상위권과 하위권 그리고 지방대로 나뉘지는 작금의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입시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 한 마리는 논술이란 이름의 토끼다. 일부 대학에서만 치러진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던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지금 급해졌다. 2008학년도부터 논술의 비중이 대폭 커진다는 뉴스에 경기를 일으키며 논술 대비에 열을 올리고들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내신이란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교육부에서 연일 내신의 비중을 강조하지 않는가. 이러니 아무리 각 대학당국에서 내신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청소년은 수능과 논술 그리고 내신까지 잘해야 하는 '만능 에듀테이너'의 부담을 안고 산다.

이제야말로 힘겨워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문학의 의미와 매력을 알려줄 청소년 출판물이 필요하다. 교과서와 참고서만으로도 부담에 떠는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책읽기'라는 마땅히 즐겨워야 할 과정에까지 논술과 수능이라는 부담덩어리를 연상시키게 하는 데 골몰해서야 되겠는가.

요즘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들 중에도 책임기에 중독된 마니아층이 상당수다. 그들은 판타지에 열광하고 로맨스에 가슴 졸인다. 그들을 흡인할 수 있는 청소년 출판기획이 필요하다.

《논리소년》이 재치있게 '논리소년과 문학소녀'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외적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도전했다면, 이제는 내적 콘텐츠에서도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움직이는 책들이 많이 나와야겠다. 이런 점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논리소년》 이후 시리즈나 개정판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논리소년》의 장점을 끌어안고 한계를 뛰어넘는 청소년 도서를 더 많이 기대해 본다. ■